유조 토야마가 지휘한 KBS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홍 승 찬 | 예술종합학교교수

‘NHK 교향악단종신지휘자’우리에게는분명너무나도생소한명칭이었지만그것이무엇을뜻하는지는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종신지휘자는 상임지휘자도 아니고 객원지휘자와도 다르다. 상임지휘자처럼 오케스트라와 늘함께하며모든것을책임지고그에따른권한을행사하는자리가아니다. 그것은의무와권리가아닌명예이고필요가아닌존경으로맺어지는관계이다.

일본의역사교과서파동으로우리나라와일본의관계가날로악화되고있다. 이런시점에서‘일본을바로 알고 배울 것은 배우자’고 외친다면 아마도 정신나간 사람으로, 혹은민족적자긍심이라고는눈꼽만큼도없는 파렴치한으로 몰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음악계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더구나 음악계에서 벌어지고있는 일들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려야할 입장에서 도저히 덮어둘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뤄둘일은더더욱아니기에당장쓴소리한마디를입에 담으려는참이다.

우리사회전반이그렇지만특히음악인들은일본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보다 못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더러는 원산지 유럽을 따라잡기도 벅찬 마당에 일본에 신경쓸 겨를이 어디 있느냐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얼핏 보기에도 일본의음악계는우리보다한참은앞서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7월 20일 KBS홀에서 있었던 KBS 교향악단의정기연주회에서지휘봉을잡은유조 토야마가 보여준 여러 가지 면면은 우리 음악계의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반성하게 해주었다. 지휘자 유조 토야마는 현재일본NHK 교향악단의 종신지휘자로 있다. NHK 교향악단과우리나라의KBS 교향악단은 여러가지면에서공통점을가지고있다. 우선공영방송국소속의교향악단이라는점도그렇지만두교향악단모두그나라를대표하고있다는점도같다. 그러나 현재NHK 교향악단위상은분명KBS 교향악단에앞서있다. 그래서KBS 교향악단을지휘하는유조토야마의모습을 한층더 세심하고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있었고실제로그어느때보다긴장된자세로연주회를지켜보았다.

모차르트에 대한 그의 해석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불현듯 오래전의 기억이되살아났다. 그것은 쿠르트

마주르가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이끌고내한연주회를가졌을때의일이었다. 우연히리허설을보게되었는데 레퍼토리 가운데 모차르트의 곡은 거기서 처음호흡을맞추는것같았다. 아마도마주르가뉴욕필의상임지휘자로부임한직후의연주였기에아마도 충분한 연습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첫 소절을 시작하자마자 마주르는 연주를 중단하고뒤로돌아서서는당황하는모습을감추지못했다. 오케스트라가들려준소리와그가생각하는모차르트의음악은너무나달랐고그런상황을미리짐작하지 못했던그로서는그것을달리말로설명할방법이없었던 탓이었다. 토야마가 들려준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G단조를들으면서그당시마주르가느꼈을것 같은황당함을경험했다. 물론악보에그려진그대로를연주한음악이었지만모차르트의음악과는거리가 멀었다. 지휘를하는그의모습은법조문을낭독하는 판사의그것과다를바가없었다. 처음부터끝까지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지만 또한 그가 들려주는 음악 어느한구석에도그자신의모습은들어가있지않았다. 그의 이런 면면이 이후 연주 순서에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되었다. 마지막 순서로 택한 레스피기의 교향시 “ 로마의 축제 ”말로 이처럼 객관적이고 묘사적인 해석이 딱 들어맞는 곡이었고 매트 하이모비츠와함께한사뮤엘바버의첼로협주곡에서도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협연자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KBS 교향악단의정기연주회는늘세계적인연주자들이협연자로나서는것때문에음악애호가들의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청중들은 협연자에게 많은 박수갈채를보내게 되고이 때문에 어느덧 협연자가 앙코르곡을 연주하는 것이 KBS 교향악단 정기연주회의전통이되어버렸다. 이번연주회에서도음악애호가들의관심은협연자매트하이모비츠에게쏠려 있었다. 하이모비츠가들려준주관적이고감성적인음악은 앞서들은 모차르트와 대비되면서 더욱 더깊은 인상을남겼다.

이날연주회를통틀어가장깊은인상을받았던것은 유조 토야마의 음악도 아니었고 그의 일거수 일투족도아니었다. 그것은그의이름앞에또렷하게박혀 있는 ‘ NHK 교향악단 종신지휘자 ’라는 직분이었다. 우리에게는분명너무나도생소한명칭이었지만그것 이무엇을뜻하는지는직감적으로알수있었다. 종신 지휘자는 상임지휘자도 아니고 객원지휘자와도 다르다. 상임지휘자처럼 오케스트라와 늘 함께하며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에따른 권한을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의무와권리가아닌명예이고필요가아닌 존경으로 맺어지는 관계이다. 말하자면 교향악단 발전에크게공헌한인물에게줄수있는최고의보답 이종신지휘자인것이다.

우리는 명예를 받을 만한 사람도 드물지만 명예를 주는것에도인색하다. 얼마전외롭게이세상을등진 홍연택감독을잊을수없다. 살아생전에도그렇지만 세상을떠난다음에도그에게는아무런명예도주어지 지않았다.

홍연택 감독의 빈소는 민망할 정도로 한산했고 그 흔한화환조차몇개없었다. 조문객도별로보이지않 았고 그나마 대부분은 그가 스스로 만들어 힘들게 지켜왔던코리언심포니오케스트라단원들이었다. 이것 이바로일본과우리의차이점이다. 그리고이것이바로KBS 교향악단이NHK 교향악단에미치지못하는 그많은까닭가운데하나이기도하다.